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⑧ 타인의 모습이 내 마음의 거울

**비리는 손주가 생기지 않다**  
 별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 온 K씨에게 뜻하지 않은 근심의 구름이 덮여왔다. 외아들 내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 보니 양쪽 다 이상이 없다고 했다. 결혼 후 5년째가 되자 이제 근심을 넘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아이가 영 안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다. K씨는 무엇을 해도 좋은 줄을 모르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길가다 어린 아이와 함께 가는 할머니만 보면 부럽고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아들 내외를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하는 만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K씨는 그 동안 절에 갈 때마다 손주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었다. '나의 정성이 부족했나?' 하며 조상님들께도 기도하고 천도재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노력을 안 한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울고 나니 더욱 외롭고 슬픈 생각이 들었다.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서러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어 전화를 했다. 그 동안도 가끔 그렇게 했었으니 전화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나 털어 놓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오늘은 그 친구의 대답이 무척 쌀쌀하고 냉정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지 않아.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하는 목소리가 여지나 차가운지 K씨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다. 이상하다. 평소와 착하고 좋은 이 친구가 왜 이러는가

**친구의 냉정한 어투 알고 보니 나와 같아**  
 아침마다 "오늘은 좋은 말로 사람들 따뜻하게" 다짐 남탓 앞서 자기 돌아볼때 '진실한 불자'

이 많은가 보지" 하고 말하곤 했다.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이 기억났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니 사실이였다. 다만 항상 습관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그런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생각도 없었다. 그 만큼 K씨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무관심하고 냉정했던 것이다. 평생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내 말부터라고요. 그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내 말과 모습이 어땠는지를. 그 후 2년 동안 전 많이 변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 없이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마음부터 고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들 내외의 시험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K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일 손주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가진 새 아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타인은 나의 거울**  
 타인의 모습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언행이 나에게 없는 것은 없었는지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바꾸고 싶은 언행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변화해 가는 진실한 불자가 됩시다.

■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 부처님 감사합니다

## 어머니의 '천수경' (하)

박성민 서울시 금천구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아금견득수지(俄今聞見得受持) 원해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義)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은 영원 속에 만나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듣고 배워 간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치오리다.

이 세상에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은 높은 산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추억이 깃들었기에,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불설대부모은중경>을 통해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열 가지로 나누어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모시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모시며 그 어깨 위에서 대소변을 받으며 백천만겁 동안 수미산을 돌아도 갚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끝도 없고 높는데 이 못한 중생은 언제쯤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나 한결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라", "짜우지 마라", "아프면 약 사먹어라" 등 오직 못한 자식 걱정뿐입니다. 야단을 쳐도 그 밑바닥에 깔린 자식에 대한 애뜻함을 알기에 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림: 문병성

이런 고귀한 사랑에 저는 무엇이 부족하여 이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이제와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를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나 웃고 울며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란 울타리가 곁에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부처님의 자비가 곁에 있어 그래도 전 분명 행복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어두웠던 삶, 육신과 집착으로 가득했던 삶을 이제는 기어 속에서 지우고 가족의 중심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마음이 까맣게 질망으로 어두워질 때 부처님께 의지해 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 가장이 그 태두리 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며 허황된 망상에 빠져 욕심과 망용으로 세상을 살아왔으니 그 얼마나 아둔한 삶이었겠습니까?

부처님의 참 마음을 알고 조금 더 빨리 깨우었다면 오늘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 것을... 뒤늦은 후회가 가득할 뿐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연약한 중생이기에 회생과 용서의 마음에 작은 촛불이라도 꺼 내 주위를 단 한 번이라도 밝히면서 어두웠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뒤우치고 싶습니다.

선도 악도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이며 또한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이 몸 한없이 낮추어 부처님 전에 절하여 탐(貪)·진(瞋)·치(癡) 삼독(三毒)에 빠져 있는 산란한 마음의 허물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처음 어머니 덕분에 만난 <천수경>. <천수경>을 읽다보니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른 불서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였을까요. 제가 선택해 읽은 경전은 바로 <불설대부모은중경>이었습니다.

### 모래위의 누각 같았던 지난 세월 독경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

### 신 행 계 니 판

**도선사 보살계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는 4월 2일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전계대회상 현성 스님, 교수사리 혜정 스님, 갈마사리 혜성 스님 등이 수계법회를 이끈다. (02)993-3161

**어린이 찬불가 울동 경연대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찬불가 울동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4월 1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에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면 7일까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02)738-7860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단원모집**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이 노래와 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민족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포교사로서 문화사절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제16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청소년이 모집 대상이다. 오디션을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사무실에서 열린다. (02)725-7847

**해동용공사 은적사 등 삼사순례**  
 해동용공사신도회는 3월 28일 봄맞이 성사순례에 나선다. 백제 무왕이 창건하고 나용

화성이 중수했다고 전하는 은적사, 백제의 자랑 대 첨견된 불지사, 백제무왕과 선왕공주의 창건설화와 함께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를 참배한다. 동참금은 3만원. (051)722-7744

**능인선원 다라니 철야정진**  
 서울 능인선원은 3월 31일 밤 10시~4월 1일 새벽 2시 30분 '스스로 서로 하나 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주말에 진행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은 12월까지 이어진다. (02)577-5800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을 공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